다매체시대 어린이 독서운동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The Promotion of Reading Books for Children and the Role of Public Library in the Age of Multi-Media

김 수 경(Soo-Kyoung Kim)*

〈목 차〉

Ⅰ. 서 론
Ⅱ. 다매체시대 독서와 독서교육
1. 다매체시대에서 미디어 바로 보기
2. 다매체 세대의 특성과 독서에 대한 인식
3. 다매체시대 독서와 독서교육의 방향
Ⅲ. 어린이 독서운동의 사례
1. 외국의 어린이 독서운동
2. 우리나라의 어린이 독서운동
Ⅳ. 어린이 독서운동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1. 어린이와 책을 이어주는 도서관
2. 이야기로 삶을 나누고 치유하는 도서관
3. 지역 어린이도서관 설립
4. 어린이전문사서 양성
Ⅴ. 결 론

초 록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매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독서는 어떤 의미이며, 그들의 특성과 독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아가 독서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일고있는 어린이 독서운동의 국내외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우리나라의 어린이 독서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와 책을 연결해주는 매개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하며, 공동체 문화의 형성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 방법으로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세대를 이어주는 이야기문화를 부활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열악한 어린이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는 데 힘써야 하며, 학계와 도서관협회 및 도서관 현장에서는 어린이 독서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주체인 어린이 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해 교육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주제어: 다매체시대, 독서, 독서교육, 어린이 독서운동, 공공도서관의 역할, 이야기문화,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전문사서

Abstract

This paper is to emphasize on important of reading books and reading instruction at the age of multi-media. And this paper observes the promotion of reading books for children in all the world. Especially the role of public library is important for the promotion of reading books for children.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 plans for the promotion of reading books for children successfully. The role of public library is a mediator for book and children. We have to restore storytelling culture for forming cooperative culture and healing heart pain in the public library. And We have to found a children's library around the children's life, especially in the local government. We have to train children's librarian immediately in educational institution. We have to enhance the specialization of children's room librarian in the public library.

Key Words: the age of multi-media, reading books, reading instruction, the promotion of reading books for children, the role of public library, storytelling culture, children's library, children's librarian

* 창원전문대학 겸임교수(ksk1101@hotmail.net)

• 접수일 : 2003. 2.18 • 최초심사일 : 2003. 2. 26 • 최종심사일 : 2003. 3. 10

Ⅰ. 서 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까지 우리가 접하는 매체는 과연 몇 종일까. 그 중에서 나는 어느 매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때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지, 그 매체들이 담고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동일한지, 다른지, 그리고 각 매체들이 나의 삶에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지, 등에 대한 물음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자.

위의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루 일상이 머리 속을 스크린처럼 지나갔을 것이다. 그야말로 매체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컴퓨터에 빠져있는 1200만의 아이들을 책벌레로 만든 책.' 이것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자리잡고 있는 「해리 포터」 시리즈의 광고 카피다. 이 광고 카피는 정보화로 요약되는 급격한 시대변화에 대한 기성세대의 착잡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컴퓨터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란 말속에는 '아이들이 컴퓨터에만 빠져 책을 멀리하는 것은 문제다'는 염려가 숨어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 가운데 '물경 1200만의 아이들이 책벌레가 됐다'는 말속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다.[1] 이는 또한 책읽기를 꺼려하는 아이들에게도 그들에게 흥미있는 내용의 책이라면 얼마든지 아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출판된 책 중에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책들이 그만큼 작았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 사회로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책읽기는 흥미로운 오락 제공으로서 기능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락성으로 따지자면 다른 매체들 중에서 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다매체시대에 전세계가 왜 어린이 독서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표정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독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발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캠페인은 정당하다. 이것은 바로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행복추구권의 문제에 가깝다. 독서의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까지 명시하고자 한다면 지나친 일이겠지만, 어린이들은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지녀야 하지 않을까? 어린이 독서 캠페인은 그런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어른들의 책임사항이다."[2]

이러한 전 세계적인 독서캠페인 운동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운동 차원으로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3]과 '학교도서관살리기 국민연대'[4]와 '사이

1) 김진경, "'지식의 유목민' 사로잡은 농경민적 상상력," 출판저널, 통권 298호(2000. 9. 5), p.36.

2) 표정훈, "전세계에 부는 독서 캠페인 열풍 :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돋보여", 출판저널, 통권299호(2001. 4. 5). p.36.

3) 2001년 2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개혁시민연대, 대한출판문화협의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도서

언스 북스타트 국민운동'[5]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매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독서는 어떤 의미이며, 또한 독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어린이 독서운동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우리나라의 어린이 독서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다매체시대 독서와 독서교육

현대 사회를 정의 내리는 여러 말들이 있다. 정보가 어느 가치 보다 우위에 있는 '정보사회',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지식기반사회', 모든 기호가 디지털 부호화되는 '디지털 사회', 모든 매체가 통합되는 '멀티미디어 사회', 정보가 이미지로 전달되는 '영상매체 시대', 다양성과 대중성을 표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등 여러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현대사회를 지칭하는 용어마다 독특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용어들에 대한 세부적인 함의들에 대해 논하지 않겠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우리 삶의 양식이 많은 매체들 속에 담겨서 생산되고 유통된다는 점에서 오늘날을 '다매체시대'로 명명하고자 한다.

1. 다매체시대에서 미디어 바로 보기

하나의 기호(정보)가 여러 가지 매체에 담겨 제공되는 다매체시대에서 기호(정보)와 미디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더욱 다양화·대중화된 매체 환경에서 기호는 누구든 어디에서든 피할 수가 없는데, 그 결과 의미의 붕괴로 드러나기도 한다. 기호가 너무 많은 방향에서 급조되기 때문에 모순되고 상징할 수 있는 힘이 쇠락한다는 것이다. 브드리야르(J. Baudriiard)는 '정보가 더 많아질수록 의미는 더 적어지게'되는 현상으로 지적한다. 바티모(G. Vattimo) 또한 기호의 다중성은 오히려 그 기호가 갖는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능

관협회,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등 5개 단체는 물론 이 운동의 취지에 동참한 지식인 100인 및 그 외 인사들이 선언 및 기자회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4) 2000년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창립대회식을 가졌다.

5) 2001년 6월 23일,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김수환 추기경,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기술인,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과학도서 보내기 운동인 '사이언스북 스타트 운동' 선포식이 열렸다.

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드리야르는 현대 자본주의의 대중소비사회를 시각적 이미지가 대량 증식되는 사회로 보고 인간의 집합적 행위가 법칙이나 이데올로기, 합리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뮬라시옹'(이미지)으로 흐르는 정보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았다. 시뮬라크라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이므로 허구가 현실을 구축한다. 여기서 현실이란 가상현실이나 초현실이, 실재하지는 않으나 관념 속에서의 실재를 인정하므로 '현실 이상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시뮬라크라 사회로서의 성격은 중세적 봉건사회의 종말과 함께 시작되어 현대 컴퓨터 기술시대에 이르러 완성되어 가고 있다.[6]

이렇게 허구가 현실을 구축하는 가상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해, 김정환은 새로운 사유와 행동으로 '예술적 상상력'을 내놓고 있다. 그에 의하면, "예술적 상상력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다. 굳이 말하자면 예술의 기능을 떠올릴 수 있다. 인터넷의 가상현실엔 사물을 획일적으로 언명하는 이데올로기가 넘쳐난다. 반면에 아날로그 예술은 현실을 가상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상현실을 스스로 느끼게 한다. 정보와 지식은 예술적 상상력을 통과해야만 인간적인 삶의 지혜로 전유될 수 있다."[7]

사이버 미디어로는 독자들이 '래디 메이드된 가상현실' 그 결과만을 즐길 수 있을 뿐이지만, 오리려 문자예술은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과정자체'를 즐기면서 더욱 확실한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이버 미디어 시대에 '예술적 상상력'이야말로 가상현실을 실감나게 만드는 기술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적 상상력은 문자예술인 '책' 읽기를 통해 길러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책읽기의 수단인 인쇄매체와 가상현실의 수단인 영상매체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자.

인쇄매체와 영상매체와의 관계는 오락적 내용에서 기능적 상호변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분명히 특성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차이는 영상매체는 흐름, 즉 시간적 전환에서 오는 '스쳐 지나가는' 전자적 내용의 짧은 수명과 모호함을 창출하는 데 반해 인쇄매체는 반복수용의 용이함으로 인한 집중과 몰입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듯 매체가 갖는 이용 속성의 차이는 매체간 특화의 가장 큰 요인이다.[8]

새로운 매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가에 대해, 이니스(H. Innis)는 어느 시대의 지배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더 발달된 영역의 매체로 대체될 것임을 예견하였다. 그의 제자인 맥루한(M. McLuhan)도 출판매체는 텔레비전에 의해 대체될 것임을 언명한 바 있다. 그러나 맥루한이 주장하는 매체간의 대체나 전환은 일부분을 제외하

6) 이정춘, 미디어 환경과 독서교육, (서울 : 이진출판사, 2000), p.68.
7) "예술적 상상력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출판저널, 통권 299호(2001. 4. 5), p.21.
8) 이정춘, 전게서, p.78.

고는 다매체 환경의 속성을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책의 운명에 대해서 영상매체로 대체를 선언했던 맥루한의 접근에 대해 뉴먼(S. B. Neuman)은 경험연구를 통해 비판했다.[9] 즉, 뉴먼은 이니스와 맥루한의 대체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출판 매체와 TV를 위시한 다매체 관계는 공동상승작용을 한다는 시너지이론(synergy theory)으로 분석하여 대별되는 양 매체간의 상보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매체 활용의 시너지 효과는 각 매체를 최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사용자를 전제로 하며, 여러 매체 사이의 활성화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김영민은 "신매체 정보공간은 아직은 비성찰적이고 지속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매체 환경을 찬양하는 소문에 덩달아 들뜨지 말고 그것이 독서문화의 활로로 이어지지 못하는 반인문적 현실에 좀더 주목해야 한다. 활자문화는 결코 녹록(錄錄)치 않으며, 그것이 쌓아온 인문적 전통을 더욱 확실히 현실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신매체를 스며들게 해야 한다."[10]고 했다. 새로운 매체로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브라운(J. Brown)은 매체의 욕구가 연령별로 다르므로 연령에 따라 다른 매체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이 주장에 대해, 뉴먼은 10대들의 어떤 욕구는 TV를 통해 충족되는 반면, 같은 욕구가 청년기에는 책을 통해 더욱 충족되는 예와 같이, 연령이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매체간의 수용 욕구는 같다는 관점을 가진다.[11] 이 견해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정적인 매체에 더욱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매체 경험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경험의 확대로 사고와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매체 쪽을 선호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다양한 매체를 접하며 살고 있는 다매체 환경하에서 매체를 보는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즉, 매체의 특성이 다르고, 또한 사람들마다 기호가 다르며, 연령별로도 매체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는 기존 매체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점에서 모든 매체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2. 다매체 세대의 특성과 독서에 대한 인식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컴퓨터 또는 인터넷의 무절제한 사용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청소년들도 컴퓨터를 학습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오락적 도구로 사용하며, 온라인상의 가상 게임과 오프라인의 현실을 구분 못하고 가상 현실의 연장으로 여겨 게임상

9) 상게서, pp.77-78.
10) 김영민, "뉴미디어 담론에 묻힌 반인문적 독서문화," 출판저널, 통권 306호(2001. 7. 20), p.25.
11) 이정춘, 전게서, p.78.

의 도구를 돈으로 사고 판다든지 더 심하게는 상해까지도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러 매체의 오남용은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흙장난을 해보지 않은 아이가 자연에 대해 어떤 근원적인 이해를 할까. 텔레비젼과 컴퓨터 앞에 매달려 아동기의 대부분을 '가상 현실'의 체험으로 보낸 아이들이 과연 다른 사람,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을 이해하고 약자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능력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리라는 기대는 어려운 일이다. 사이버 상의 '가상현실'의 경험은 거기서 사람이 싫증이 나거나 고통을 느낄 때는 언제라도 플러그를 뽑아 버리면 순식간에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뿌리없는 경험'이다.[12]

소위 말하는 신세대들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없고 지루함을 쉽게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매체 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매체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13]

첫째, 그들은 전자매체나 영상매체와 매우 친숙하다. 그러므로 보다 자극적이고, 예민하며, 생각하기보다는 행동하는 세대이다.

둘째,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다. 정보사회의 특징인 탈규범화의 현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강력하게 매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규범의 약화로 인해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롭고, 자기 중심적이며, 다양한 가치관을 갖는 세대이다.

셋째,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대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지니며, 퍼스널컴퓨터의 보급 및 보편화는 그러한 성향을 더욱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넷째, 문자부호보다 영상이나 음향부호와 친숙하다. 따라서 지연된 보상(delayed rewards)을 주는 정보 즉 도덕적 정보라든가, 심미적인 정보보다는 즉각적인 보상(immediate rewards)을 제공하는 정보, 즉 실용적인 정보나 오락적인 정보를 훨씬 더 선호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생활행동과 정보행동사이의 관계가 밀접하다. 취미정보의 획득에 매우 적극적·능동적이며, 관심정보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기 나름대로 정보검색요령을 습득하여 최단시간에 최적의 정보를 습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매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독서에 대한 인식이나 독서행태 또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14]

첫째, 실용적인 정보와 다양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의 독서를 원할

12) 양재한·김수경·김석임 공저, 어린이독서지도론, (대구 : 태일사, 2003), p.16.
13) 유재천, "멀티미디어시대의 사회문화와 독서행태의 변화," 멀티미디어시대의 책의 진로와 전망, (서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3), p.12.
14) 상게논문, pp.12-13.

것이다. 그리고 독서를 하는 행위자체가 정보를 구하는 행위로 인식할 것이며, 자신의 요구에 부합되는 풍부하고 다양하며, 실용적인 정보를 탐색, 획득하기 위하여 독서행위를 이용할 것이다.

둘째, 자극적이며, 예민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감각세대이므로 독서행위 자체를 자신의 오락적 행동으로 인식할 것이며, 단순한 문자의 인식과 이해라는 과정을 넘어서 음향과 영상이 조화를 이룬 하나의 통합적·종합적 정보행위로 인식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이용을 독서로 인식할 것이다. 기계에 친숙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력이 높은 만큼 독서 역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내면화시키는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넷째, 정보욕구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특별한 관심, 즉 감정적인 행위의 요구나 행동표현의 필요 등에 독서행위를 이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고독·슬픔·사색·고통·자기정체성·자기회의 등에 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을 독서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평생 다매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세대들은 기존의 세대들과는 독서와 독서교육의 방향의 방향이 달라야 할 것이다.

3. 다매체시대 독서와 독서교육의 방향

새로운 컴퓨터 매체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독서는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해서 김진경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계적인 지식에 대한 흥미도 존경심도 없다. 그렇다고 체계적인 지식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소수의 학생들이 흐뭇하게 여겨지는 것도 아니다. 필요하니까 체계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열정이나 정서적 공감대가 있는 것이 아니다."[15]고 한다.

컴퓨터가 생활화되는 시대에도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데 책으로 상징되는 농경민적 지식체계의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책을 완전히 멀리한다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앞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주변적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식의 유목민적 사회가 지속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지식의 카스트 제도'가 자리잡아서 책으로 상징되는 농경민적 체계를 충분히 소화한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가 더 심하게 차별화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16]고 예견한다. 전자매체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책읽기와 그 능력은 매체가 발달할수록 지식 습득 수단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제독서협회 회장인 피컬스키(J. Pikulski)를 위시한 독서전문가들도 독서와 다른 매체

15) 김진경, 전게논문, p.36.
16) 상게논문.

와의 상호작용을 '메티유 효과'(Matthew effect)로 설명한다. '메티유 효과'란 습관·태도·숙달은 상호작용하며, 서로간에 공급하는 효과로서, 독서를 많이 할수록 다른 매체이용과의 순환에 기여할 수 있으며, 뉴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독서와 글쓰기의 양이 증가하며 상호의 효과에 크게 공헌하는 것이다.[17] 다매체 환경에서 책읽기는 다른 매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새로운 매체의 다양한 출현으로 지식과 정보의 생산단계부터가 옛날의 아날로그 방식과는 크게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매체로 생산,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수용하는 독자들도 다양한 매체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Considine*은 매체 활용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를 "모든 유형의 미디어에 접속, 분석, 평가할 수 있으며 인쇄매체와 비인쇄매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미디어 유형으로 정보를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며 미디어 리터러시는 고도의 비판적 사고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란 단순히 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 평가하며 그러한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자신의 의견이나 사고를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므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도구 사용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사고 능력까지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탐구의 원칙이며 사고력인 것이다.[18]

따라서 오늘날 독자에게 요구되는 독서능력은 책읽기 능력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그 기본은 책읽기이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세우는 일'이다. 여기에 반드시 사고작용이 필요한데, 다른 어떤 매체보다 책읽기는 이러한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책읽기는 곧 '생각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능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능력은 내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 옛 사람들이 독서를 '득력(得力)'의 수단으로 여겼듯이 이는 오늘날도 유효하다. 따라서 오늘날 책읽기는 "'생각하기'를 통한 '자기 변화의 과정'으로서 '평생 자기학습의 수단'"의 의미라 할 수 있다.[19]

평생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 독서교육과 함께 미디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디어에 대한 교육과정이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백신이라면 사고력을 높여주는 교육과정은 체력 자체를 단련시켜주는 좀더 본질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 교육과 독서교육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독서교육에

17) 이정춘, 전게서, p.78.

18) 한정선, "미디어교육의 새로운 해석과 접근: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y)," 교육공학연구, 제16권, 제2호 (2000. 9), p.171.

19) 김수경, "조선시대 독서론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 제13권, 제2호(2002. 12), p.261.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정보는 '문자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이해력은 곧 '문자 언어'의 이해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독서행위는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20]

한편, 책이나 매스미디어에서는 어느 정도 타인에 의해 여과된 정보가 제공된다. 한 예로, 영화는 심의를 거쳐 등급을 정하고 미성년자의 관람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텔레비젼 프로그램도 기획자나 제작자, 또는 심의위원회에 의해 일단 심사된 즉 여과된 정보가 제공된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웹상에서는 여과장치가 최소화되어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여과되지 않은 정보에 무제한 접속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접속의 문제는 기술적인 접속에 제한된 것이 아니고 가치관이나 도덕관에 근거한 접속의 선택 여부로까지 확대된다. 인터상에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느냐 유용한 정보가 담겨진 사이트에 접속하느냐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올바른 도덕관과 가치관을 가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덕목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포함되어야 한다.[21]

따라서 독서교육의 영역은 책읽기 능력은 물론이고 매체 수용능력을 기르는 미디어교육을 포함한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사고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서교육의 기본 위에, 미디어교육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Ⅲ. 어린이 독서운동의 사례

요즈음처럼 어린이 독서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많아진 적도 드물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어린이 독서 캠페인 운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다매체 환경에서도 여전히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히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독서운동의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후 성공적인 어린이 독서운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1. 외국의 어린이 독서운동

성공한 독서캠페인의 전형으로는 영국의 '북스타트 운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운동은 1926년 설립된 민간단체 북트러스트(Book Trust)가 주도한다. 북 스타트 운동의 기본

20) 이정춘, 전게서, p.207.
21) 한정선, 전게논문, pp.172-173.

정신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부터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후 7~9개월 때 건강 검진을 받는 아이들에게 두 권의 유아용 도서와 부모용 소책자가 담긴 가방을 제공한다. 부모를 위한 책자는 해당 지역 도서관 이용안내와 함께, 유아의 독서 활동 지도를 위한 조언을 담고 있다. 이 운동의 특징은 참여 어린이들의 향후 발달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이다. 버밍엄 지역에서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버밍엄 대학 교육학과에서 5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 어린이들은 참여를 하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서 책 · 서점 · 도서관 등에 대한 친근감, 책을 활용하는 빈도, 북클럽 활동이나 도서관 열람 등에서 모두 앞서 있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학습 성취도도 높았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특히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에서 공히 앞섰다고 한다.[22]

미국의 경우 전국적인 비영리 민간단체인 퍼스트북(First Book)이 주도하는 캠페인이 인상적이다. 이 단체의 설립목적은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 어린이들이 자신의 '첫 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지역 공동체 차원의 복지 및 구호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원 봉사자들은 지역별로 퍼스트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한다. 특기할 것은, 중고도서를 보급하지 않고 반드시 새 책을 보급한다는 점이다. 이 캠페인은 '부의 재분배'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식의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23]

그리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부시 여사가 「바바라 부시 가정 교육재단(The Barbara Bush Foundation for Family Literacy)」을 운영한다는 안내서는 부시 여사가 독서 및 아동심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가 직접 쓴 어린이 독서교육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이다. 여기에는 "친구들에게(Dear Friends)" 보내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왜 소리를 내어 읽어야 하는가?(Why Read Together?)" 그리고 "소리내어 읽는 비결(Tips for Reading Aloud)"을 적어 놓았다.[24] 뿐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도 자신의 육아 경험을 책으로 내면서 아기의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책 읽어주기를 제안했다.[25] 이렇듯 미국에서는 대대로 백악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책읽기 운동을 펼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1988년 독서문화의 퇴보와 문맹 증가를 막기 위해 설립된 독서재단 *Stiftung Lesen*에서 연방 대통령 로만 헤어초크(Roman Herzog)의 비호를 받으며, 무엇보다도 부모와 교사, 사서, 서적상들을 대상으로, "읽기의 즐거움을 일깨우기"라는 모토에 맞게 여

22) 표정훈, 전게논문, p.36.
23) 상게논문, p.37.
24) 최정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와 어린이 독서교육운동," 도서관문화, 제42권, 제5호(2001. 9 · 10), pp.22-28.
25) 한윤옥, 어린이 정보자료와 활용,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7), p.21.

러 독서 장려 기획들을 전개하고 있다. 추천도서목록은 기본이고(사실 대부분의 어린이문학 관련 단체들은 나름의 추천도서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이야기를 낭독해주기,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보기, 연극으로 나타내보기, 이야기 지어내기, 혹은 글짓기 대회 등의 행사를 벌이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온갖 매체들과의 협력이다. "책, 신문, 잡지,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이 모든 매체들은 파트너이지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영화라든가 텔레비젼 프로그램, 인터넷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세기 폭스사의 영화 '타이타닉'과 관련하여 아이들에게는 인쇄 매체를 소개해주고, 교사들에게는 「타이타닉호의 자취를 찾아서 - 수업을 위한 아이디어」라는 작은 책자를 제공한다. 영화를 보았던 아이들은 책을 읽게 되고, 또 "바다에서는 어떻게 항해하는가? '타이타닉호'의 전설은? 미국은 왜 고전적인 이민국이 되었나?" 등의 질문을 탐구한다. 아울러 영화에 대한 퀴즈도 푼다. 이렇게 일깨워진 탐구 정신은 학교 수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새로 얻은 정보를 갖고 가게 되니까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갈 때 아이들은 영화의 내용과 제작 방식에 대해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또한 기차여행을 하며 책을 읽는 프로그램도 있다. 현재는 독일 철도청의 후원으로 슈투트가르트에서 함부르크를 갔다가 다시 슈투트가르트로 돌아오며 기차에서 설치된 여행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여행도서관의 도서들은 3개월마다 교체된다. 이 기획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다른 구간에서도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다.[26] 독일에서는 다른 매체와 결합한 책읽기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어린 세대로 갈수록 책을 읽지 않는 층이 늘어나면서 소수의 다(多)독자층과 다수의 부(不)독자층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1988년 치바현의 교사 오오츠카 에미코가 '아침독서'를 시도했다. 아침독서란 오전 수업시작 전 10분간 학생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이다. 강제적인 독후감도 없고 읽는 분량도 자유다. 때문에 책을 싫어하던 학생들도 점차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 성공적인 사례가 일본의 모든 초중고교에 급속히 알려지면서 2001년에는 이 운동을 실시하는 학교가 약 5천개로 늘었다. 이 때문에 책과 담을 쌓은 부독자 학생층의 증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운동은 독서율 증가 못지 않은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 학생들 상호간에 책을 공동소재로 하는 대화가 늘어 교실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집단 따돌림이나 지각생이 줄고, 학생들이 차분해졌으며, 어려운 한자를 잘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등의 사례보고가 각 학교에서 이어졌다. 독서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외감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 것이다.[27] 이는

26) 김경연, "독서문화운동의 현황과 21세기 전망-독일의 경우," 21세기 어린이 독서문화의 전망: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창립20주년 기념 세미나 (2000. 5), pp.98-99.

27) 송정숙, "정보화 시대에 '책 읽는 학교' 만들기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2. 9),

영국의 북스타트운동을 도입해 일본식으로 소화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어린이 독서운동

독서운동이란 국민들의 독서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책과 연결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독서생활에 자극을 주고,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대중화운동으로서, 국민 개인에 대한 삶의 가치를 높여 문화사회를 건설하여 선진국적인 국민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것으로서 독서운동의 성격이 요구되는데,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독서교육을 실시하며 독서습관을 형성해주는 독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28]

한국의 독서 운동은 주체별로는 공공도서관과 민간사회단체, 그리고 출판·서점계가 그 속성상 -도서관은 독서 관련 업무가 본분이라는 점에서, 민간 사회단체는 공익적 봉사활동이란 설립목적과 직접 책을 접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 조직체라는 점에서, 그리고 출판·서점계는 도서판매를 통한 생존확보라는 점에서-주된 활동을 하여 왔으며, 기업과 언론계 정부는 각 주체의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그 때 그때 지원, 후원, 협조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보여진다. 독서운동의 내용별 공통 활동은 도서관 설립, 독서행사, 도서전시회, 독서교육지도교실운영, 독서정보제공, 독후감 모집을 통한 독서장려, 독서모임의 조직과 운영 등이 이제까지의 독서운동의 주된 내용을 이루어 왔다.[29]

그러나 그 많은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독서환경과 우리 국민들의 독서수준은 다른 외국의 수준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일본의 1/6, 독일의 1/16 수준이며, 전체 공공도서관 1년 도서구입예산은 2백억원으로 미국 하바드 대학도서관 한해 도서구입 275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핀란드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도 한국 관련 서적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서적이 비치되어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어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서 놀며 책읽기를 가까이 한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관한 것이나 자신을 변화시킨 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리포트를 내주면 난감해 하는 것을 보아왔다.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해본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골 출신 학생 중에는 대학에 와서야 처음으로 도서관이라는 곳을 보았다는 학생도 제법 있다. 이런 도서관 이용 경험이 미약했던 그들

---

p.302.

28) 이우정, "한국의 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그 현황과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96, p.105.

29) 상게논문, pp.105-106.

에게 책읽기의 중요성이나 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운영하는 자질에 대해 강의하고자 하면 참 난감해진다.

이러한 도서관에 대한 왜소한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릴때부터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독서운동이 가장 주력해야 할 대상은 어린이어야 하고, 주력해야 할 부분은 좋은 독서환경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한 권의 책이 어린이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어린이에게 독서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어린이 독서운동은 크게 보면 세 단계가 있다.[30]

1) 출판 운동: 흔히 좋은 책을 모든 출판사에서 내준다면 좋은 책을 읽자는 말은 필요없다. 그만큼 출판은 독서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좋은 출판 환경은 출판사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출판사가 책을 내려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글을 쓰는 작가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 나라의 학문 수준, 문화 수준에 달려있다. 어린이책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린이책은 어른책에 견주어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학문을 연구하지 않는다든가, 아무렇게나 글을 써도 되는 건 아니다. 어린이의 좋은 독서 환경을 위해서는 좋은 출판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2) 유통 운동: 좋은 독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이 독자 손에 가깝게 그리고 손쉽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책은 서점에서 산다. 이 서점에서 어떤 책을 진열해 놓는가에 따라 독자는 책을 고르게 된다. 서점말고도 책을 유통하는 중요한 곳은 도서관이다. 모든 책을 독자가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공공 기관이 이 몫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책은 물론 학교도서관에서도 잘 갖추어져야 한다. 좋은 도서관 환경이 독서 환경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책을 독자의 손에 연결해 주는 유통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3) 독자 운동: 좋은 책을 내고, 좋은 책이 도서관이나 서점에 있다고 해도 독자가 책을 보지 않으면 모두 필요 없다. 책을 읽자는 운동이 독서운동인데, 이 운동이 국민운동이고, 시민운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독자가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린이책에 대해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독자가 어린이인데, 이 어린이가 불행히도 스스로 책을 사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경제를 손에 쥐고 있는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책을 사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유아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 그림책을 보면, 책을 읽어주는 어른과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있다. 즉 어린이책은 어찌 보면 이중 독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책 독자운동은 크게 보면 학부모운동과 어린이운동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독서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 어

30) 김중철, "독서문화운동의 흐름과 전망-어린이도서연구회 20년 활동을 되돌아보며," 21세기 어린이 독서문화의 전망: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2000. 5), pp.7-8.

린이 독서운동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부분의 노력이 다른 부분의 활기를 띠게 할 수도 있다. 산적해 있는 출판과 유통운동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지면상 논외로 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독자운동 차원에서 어린이 독서운동을 해온 시민운동단체인 어린이도서연구회와 학부모 모임인 동화읽는어른모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척박한 어린이 문화 환경에서도 소파 방정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어린이 문학과 문화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오늘날 혼탁한 상업 출판물에서 깨끗한 어린이 책의 역사를 살려 내는 일에 주력한 단체는 '어린이도서연구회'라고 할 수 있다. 올해로 23주년을 맞는 어린이도서연구회는 '겨레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이라는 기치 아래 어린이책에 대한 비평과 연구를 바탕으로 좋은 책을 선정하고, 이를 도서목록에 담아 널리 알려왔다. 이런 작업은 작가와 출판사의 분발을 이끌어 내었으며, 창작동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무엇보다 어린이책의 비평 풍토를 마련한 것은 이 연구회의 가장 큰 업적이다.[31]

1980년 어린이 독서운동을 끌고 온 주체가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주요 회원이었던 교사였다면, 1990년대에는 그 주체가 학부모로 바뀐다. 학부모들이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이 되면서 어린이책을 읽고 연구하게 된다.[32] 지역 동화읽는어른모임은 안동, 시흥, 광명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105개 모임에서 3,3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33] 이들은 학교도서관, 학급문고 살리기 운동,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에 좋은 책 갖추기 등을 통하여 좋은 독서환경 만드는 운동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과의 연계활동도 해오고 있다. 즉, 대전 유성도서관과 대전지역 '동화 읽는 어른 모임'과의 연대활동과 서울 목동 도서관을 비롯한 강서구 도서관들과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해오던 독서교실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운영과 경남지역의 김해도서관, 진영도서관, 창녕도서관에서 학부모 강좌 후속 모임으로 '동화읽는어른모임'의 결성하여 차후 협력활동을 한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산하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창원지역의 마을도서관 내의 '동화읽는어른모임'은 '동화읽는 마을만들기'로 확대되어 마을공동체 문화를 공유는 활동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 독서운동의 성공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지역의 '동화읽는어른모임'은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활동이 필요하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살리기 운동의 학부모로서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은 지금까지 해온 학급문고살리기 운동으로 비추어볼 때 적극적인 지원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천 '동화읽는어른모임'을 비롯 몇 몇 지역에서는 어린이문고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동화읽는어른모임'은 어린이 독서운동의 커다란 지원세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문화부에서는 책읽기 동기 부여를 위해 청소년 육성기금 16억원을 투입, 청

31) 양재한 외 공저, 어린이 독서지도의 이론과 실제, (대구 : 태일사, 2002), p.267.
32) 김중철, 전게논문, p.11.
33) 어린이도서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childbook.org/> [cited 2003. 2. 13].

소년 32만명에게 5천원 상당의 '청소년 도서교환권'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 운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한국도서관협회에 '청소년 책읽기 운동본부'를 설치하여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하기로 하였다[34]고 한다. 이 때 '청소년 도서교환권'은 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 '이 달의 읽을만한 책'(매달 10종)이나 문화부 추천도서 등을 토대로 '청소년 책읽기운동 추진위'가 선정한 도서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 하나의 위로부터의 독서운동으로 자칫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독서의욕을 꺾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제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Ⅳ. 어린이 독서운동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다같이 독서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으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학교도서관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성취하도록 학생이나 교사를 보조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하며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자 책임이다. 이에 반해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자유롭게 어린이들의 관심사를 토론하면서 그들의 교육이 학교이외의 생활에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보다 독서교육을 포괄적이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 도서관선언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관심, 도서관과 그 자료를 이용하는 습관은 어린 시절에 가장 형성되기 쉽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모든 어린이가 손쉽게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특수한 임무가 있다. 어린이를 위한 자료수집과 별도로 마련된 열람실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봉사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35]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어떤 어린이 봉사보다도 어린이를 평생 독서의 세계로 이끄는 데 앞장서야 할 기관이다. 이 장에서는 성공적인 어린이 독서운동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어린이와 책을 이어주는 도서관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봉사기준의 핵심은 공공도서관은 어

34) "문화부, '청소년 책읽기운동' 추진," 연합뉴스(2002. 9. 24).

35) 김수경, "어린이도서선정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어린이열람실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5. p.3.

린이에게 자료봉사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평생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독서생활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적응력을 기르는데 조력해야 한다[36]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어릴때일수록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아이들과 책의 즐거운 만남을 위해서는 매개자가 필요한데 그가 바로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친자독서지역문고전국연락회'(이하 연락회)는 "어린이가 책을 읽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며 어린이책을 만드는 이, 쓰는 이, 전해주는 이들이 손을 잡고, 각자의 처지에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어린이와 책이 만나는 모임'(1993)을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이다. 한 출판사는 '전국이야기방문부대'를 만들어 도서관, 유치원, 공민관, 서점 등이 요청하면 어디라도 차로 달려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학교에서는 '10분간 아침독서운동'을 하였으며, '연락회'와 '일본 어린이책연구회' 에서는 주로 '어린이 문고만들기'를 해왔다. 이 '어린이문고'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까지는 아이들이 문고에 많이 찾아왔고, 문고도 금세 텅텅 비었다. "아줌마 새 책 더 없어요"라며 물어올 때가 가장 괴로웠다. 그러다가 70년대 후반부터는 아이들의 생활이 학교 수업의 중압과 관리교육의 왜곡 때문에 급격히 변화되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진학교실이나 학원, 특별활동에 시간을 빼앗겨서 문고에 와서도 "아줌마, 지금 몇 시예요?"라며 시간에 쫓기는 아이가 많아졌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점점 줄어들고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 책만이 아니라 무언가 놀 거리가 있는 장소여야 했기 때문에, 종이 접기도 하고, 찰흙 빚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며 문고는 점차 '책이 있는 놀이터'가 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문고에 오는 아이들 수 자체가 감소하였다. 이는 휴대용 게임기, 텔레비젼 게임, 비디오가 널리 보급되면서이다. 그래서 문고는 아이들을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지금껏 쌓아온 경험을 살려서 초등학교나 공민관, 도서관 같은 곳에 나아가 이야기 들려주기, 책 읽어주기, 판넬 연극, 책을 주제로 한 대화 따위를 하는 '배달형' 활동을 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37]

이러한 '연락회' 활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아이와 책의 첫 만남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깨달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전하는 '어른'을 늘리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는 대부분의 어린이와 청소년, 주부 계층이다. 특히 어린이열람실에는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주 이용세력인 어린이와 주부들의 욕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모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화읽는어른모임'과 같은 학부모 모임이다. 이들은 꾸준히 어린이책을 읽으며 비평하고, 어린이문학, 문화 공부를 통하여 지역의 어린이문화 활동을 도모하는 활동과 학교도서관, 학급

36) 상게논문. p.13.

37) 히로세 츠네코 글, 박숙경 역, "독서운동의 현황과 전망-일본의 경우," 21세기 어린이 독서문화의 전망: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2000. 5), pp.27-38.

문고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등 지역의 독서교육과 어린이 문화운동의 힘있는 지원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들을 이용자로 적극 확보하고 이들과의 연대활동으로 지역의 어린이 문화의 내용을 채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지역에 그러한 모임이 없는 공공도서관에서는 학부모 강좌를 통해 이러한 모임을 결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서울지역에서처럼 어린이 열람실 사서를 중심으로 '동화읽는사서모임'을 만들어서 천편일률적인 어린이열람실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마다 특색있고 내용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이야기로 삶을 나누고 치유하는 도서관

누구든지 요즘은 너무 메마르고 각박하여 살맛이 안 난다고 한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았는데 왜 그럴까? 이른바 현대 문명의 이기의 발달로 사람들은 편해졌지만 진작 소중한 것은 잃고 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중 매체 중 TV나 라디오, 컴퓨터 같은 것은 여럿이 둘러앉아 즐길 수 없다. 혼자서 한쪽 방향만 보고 일하거나 즐겨야 하는 '닫힌 문화', '일방문화'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와 다르다. 이야기는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온몸으로 서로를 느끼며 나누어야 제 맛이 나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더 보태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공동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야기 문화는 '열린 문화', '대면 문화', '공동체 문화'이다.[38]

1998년 MBC에서 추석특집으로 방영한 「동화의 세계」는 유럽의 공동체 문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어린이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비디오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독일 동화의 길', 제2부는 '꿈꾸는 아이들', 제3부 '옛날옛적에...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독일 동화의 길>에서는 독일의 어린이 문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그림형제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이 수집한 옛이야기의 작품에 나오는 독일의 70여 개 마을을 '메르헨(동화) 가도'로 묶어서 그 작품의 현대적 재연(인형극, 연극, 축제, 박물관 등)을 통해 관광객은 물론 독일 사회 구성원에게 그들의 전통을 세대로 이어주고 있었다. 또한 '메르헨(동화) 가도 협회'가 있어 그림 형제와 관련된 자료는 물론 메르헨 가도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부 <꿈꾸는 아이들>에서는 영국 환타지 동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럴

38) 서정오, 옛이야기 들려주기, (서울 : 보리, 1995), pp.30-31.

과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베리의 삶을 조명하고 그 작품 배경이 되었던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의 비참했던 어린이들의 삶의 모습, 피터팬의 저작권이 기증된 그래이트 아몬트 아동병원의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3부 <옛날옛적에... 그 이후>에서는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에 대한 작품 배경과 프랑스의 고서점, 현대에 맞게 패러디한 『빨간모자』와 『신데렐라』이야기, 세계 최대 출판사의 하나인 갈리마르 출판사의 작업 모습, '책에 의한 기쁨'이라는 팻말이 붙은 파리 근교의 어린이전문도서관과 파리 세느강 유람선에서 하는 동화구연 공연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럽의 어린이 문화를 엿볼 수 있었는데, 어린이의 삶 속에 동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점이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신도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이야기 해주며, 학교에서도 수업에 동화 읽어주기와 이야기 나누기, 연극으로 꾸며보기를 통해서 동화를 몸으로 읽어갔으며, 사회에서도 각종 공연과 행사, 도서관과 박물관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그들의 민족정서가 담긴 동화를 전달해 주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듯 서로 모여서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즐기며 아주 자연스럽게 문화 전통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정부의 지원과 지역단체,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적극적으로, 또한 철저히 해 나가고 있었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는 바로 문화 향수자인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사례였다.[39]

다매체시대에도 오랜 전통으로 남을 이야기 문화를 이어줄 역할을 도서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살아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야 도서관이 살고, 도서관이 살아야 이야기 문화, 공동체 문화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 문화를 살리는 일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 문화를 살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 이야기의 직접적인 소재는 우리의 생활에서 발견되는 생활경험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내용은 실제 생활과 직결된다. 그러면서도 이야기의 내용은 현실이 아닌 가상적인 것이다. 실제성을 필요 조건으로 띠면서 동시에 그 자체는 현실이 아닌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패러독스의 성격이 이야기의 본질이다. 또한 언어는 실제가 아닌, 그러나 실제를 표상(representation)하는 하나의 상징체계이며 탈맥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통해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 현재를 벗어나 과거나 미래의 일을 이야기 할 수 있다.[40]

다매체시대의 책읽기는 '읽는' 데서 '보고, 듣고, 느끼는' 멀티미디어 책읽기로 나아가고 있다. 즉 글보다 그림을 먼저 보고, 책을 마치 스캐너로 훑듯이 읽어나간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이 논픽션 책이다. 주로 과학이나 역사, 환경 문제 들을 다루고 있는 논픽션 책은 문자위주의 전통적인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와 영상매체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41] 다소 딱딱하고 지식 전달 위주의 책은 놀이와 교육이 어우

39) 김수경, "지방자치제 하에서 어린이 문화운동의 거점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 해돋이(창원도서관), 제13집(2000), pp.17-18.

40) 노명완, "이야기의 교육적 의의," 교육개발, 제44권(1986 · 10), p.19.

러진 에듀테인먼트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네러티브가 강한 이야기 문학은 책을 통하거나 사람과의 대면을 통한 이야기를 통해 전해져야 제 맛이 난다.

어린이의 관심을 유발하는 이야기는 어린이를 즐겁게 만들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이다. 또 이야기들이 어린이의 삶에 도움이 되려면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감정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불안이나 소망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이해시키며, 동시에 어린이가 괴로워하는 문제에 해결책도 제시하는 이야기여야 한다. 간단히 말해, 어린이의 인성 전반에 작용하는 이야기여야 한다. 어린이가 처한 난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보다는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시에 어린이에게 현재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우는 이야기여야 한다.[42]

이런 모든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문학 전체를 통틀어 '옛이야기'만큼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충족감을 주는 것은 없다. 옛이야기가 현대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바가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옛이야기는 어린이들이 읽는 어떤 다른 유형의 이야기보다도 인간의 내면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또 어린이가 처한 난관에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린이에게는 자신을 더 많이 알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감정의 동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옛이야기는 어린이에게는 내면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옛이야기는 요즈음 경시되고 있는 도덕교육을 추상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미묘하고 암시적인 방식으로 실감나면서도 저절로 의미를 깨닫게 한다.[43]

또한 (옛)이야기 들려주기는 힌두 민간요법에서 심리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사람에게 알맞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치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즉 옛이야기를 묵상하는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기 괴로움의 본질과 해결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것이다. 인간의 절망이나 고난의 극복방법을 담고 있는 특정 이야기에서 환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까지 알아낼 수 있다.[44] 이는 이야기요법 또는 독서치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요법과 책읽기(책에는 이야기가 담겨있으므로)를 통한 독서치료 방법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45] 앞서 살펴본 유럽의 예에서처럼 이야기문화의 부활은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

41) 이성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 책," 출판저널, 통권 제279호(2000. 5. 5), p.16.
42) 브루노 베텔하임 지음, 김옥순 · 주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 I(서울 : 시공주니어, 1998), p.15.
43) 상게서, p.16.
44) 상게서, p.42.
45) 송영임, "정신보건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 연구: 독서치료의 적용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2, p.46.

따라서 어린이와 어머니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독서문제아의 독서상담은 물론이고 마음이 아픈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상담과 도서목록 개발 등을 통한 치유와 이웃끼리, 친구끼리 서로 좋은 책을 추천해 주고, 아이 키우는 이야기, 하다 못해 잃어버린 강아지 이야기, 학교 이야기, 지역 살림살이는 물론 선거 이야기들까지 오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소통의 통로이자 친근한 사랑방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지역 어린이도서관 설립

우선 어린이들의 독서환경으로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전국 437개관이고, 초등학교 도서관은 전국 4,099개교이다.[46] 공공도서관이라도 어린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는 공공도서관 중 서울의 사직어린이도서관과 노원구립도서관[47]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에는 실 정도의 어린이열람실이 있다. 그리고 문고 수준의 사립 어린이도서관은 전국적으로 42개이며, 사립어린이도서관으로서 인표어린이도서관은 국내 14곳이 있다.[48] 이런 정도의 도서관수로는 어린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없다. 특히 어린이들의 생활반경은 좁은 데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어린이 생활주변에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도서관이 필요한데, 예산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규모는 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반면, 문고 수준의 사립 어린이 도서관은 비록 10평에서 30평의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활동 내용이나 영역을 볼 때 지역에서 어린이 교육문화운동의 중심으로 역할해 온 데는 손색이 없지만,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장소의 문제로, 동사무소나 노인정 등의 공공장소를 확보한 몇 몇 문고를 제외하고 대부분 임대이기 때문에 잦은 이동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되어있는 몇 몇의 어린이문고는 구나 시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는 곳도 있지만 대개의 어린이문고는 임대료나 인건비의 부담이 크다. 셋째, 담당자 교육의 문제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넷째, 자료관리에 따른 문제로 대부분 도서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운영하거나 담당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료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49] 이는 비단 어린이문고뿐만 아닐 것이다. 현재 전국에 약 2,300 여개의

46)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2002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47) 노원구립도서관이 2003년 2월 20일 문을 연 것으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전용도서관이 1곳 더 추가된 셈이다.
48) 어린이도서연구회, 2003 학년별 어린이 권장도서목록 (서울 : 어린이도서연구회, 2002), pp.127-128.

문고나 대부분의 사립공공도서관들도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것이다.

어린이문고는 현재 작은도서관협의회, 어린이문고를 만드는 사람들, 어린이도서연구회 동화읽는어른모임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의 참신함과 다양성이나 지역 주민과의 유대감과 교육운동과 학부모교육운동 등의 교육, 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데 반해, 존립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로 제한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고에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 재원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이라고 해서 독립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되는 예는 드물다. 또한 담당직원도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인사이동에 의해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동되어 업무의 연계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또한 독립된 실이라고 하지만 자료실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관내의 다른 공간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고 보아진다.

현재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어린이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공공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립 전문어린이도서관은 전국 437개관의 공공도서관 중 서울 사직동 어린이도서관이 유일한 곳이다. 그런 가운데, 1997년 설립된 동양최대의 문화센터라 할 수 있는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 4층(136평)을 전용 사용하는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이 2001년 5월에 문을 연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복사골문화센터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공무원과 시민운동가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기존의 공공기관의 운영보다 훨씬 역동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다.

부천의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의 설립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설립 준비팀의 철저한 지역 조사와 전문가에 자문을 구하고 기증운동을 벌이는 등의 사전 준비에 있어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과의 연대와 참여가 돋보인 점이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 주목되는 몇 가지 점은 다음과 같다.[50]

첫째, 설립 목적 자체가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하자'는 것이어서 무엇보다 좋은 책을 구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무엇보다 공간 자체를 아주 매력적으로 꾸몄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유아에서 어린이까지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 바닥에는 장판을 깔았고, 기둥이용 책상, 소파형서가, 벤치형 의자, 육각소파 등 아이들의 다양한 개성을 고려하였

49) 전영순, "어린이문고의 현황과 전망," 한국도서관협회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2002. 9), pp.417-418.

50) 이진우, "책 읽어주는 어린이도서관 '동화기차' 설립 및 운영 사례," 한국도서관협회 제10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2002. 9), pp.427-449.

고, 특히 중앙에 위치한 기차모양의 서가는 아이들이 직접 기차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점이다. 셋째, 아이들에게 책을 전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특히 '마녀가 들려주는 그림책이야기'는 사서와 자원봉사자가 간단한 마녀복장을 하고 열람실에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며, 그림책을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그리고 작품성 있는 비디오를 보여주는 어린이극장의 운영도 돋보인다. 넷째, 독서는 물론 다양한 독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년별로 꾸려져 있는 어린이 동아리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어머니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동화기차는 '어린이(부모 또는 지역)를 위한, 어린이(부모 또는 지역)에 의한, 어린이(부모 또는 지역)의 도서관'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도서관 역사상 현재까지 이런 어린이도서관이 만들어진 예는 드물다고 보아진다. 지방자치 시대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러한 '어린이도서관 동화기차'가 각 시도별로 한 곳씩만 만들어진다면 우리 어린이문화 수준은 부쩍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는 늘 미래에만 존재하는 듯이 항상 어린이 앞에 '미래'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현재'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미래'의 주인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지역에 도서관이 몇 곳 있다면 어느 한 곳을 특화하여 어린이도서관[51]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중앙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아이들 생활 공간 가까이에 적은 규모로 여러 어린이도서관이 만들어 질 수도 있으며, 학교도서관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 학교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 역할을 하도록 설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의 어린이도서관[52]은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

51) 이러한 특화된 어린이 도서관의 사례로는 '창원시'의 예를 들 수 있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도서관별 특화사업에 따라 시립도서관은 환경도서관으로, '상남도서관'은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고향의 봄 도서관은 이원수 특화도서관으로 각각 운용된다고 한다. 이 중에서 지난해 문을 연 상남도서관에는 어린이 자료실을 확충하고 국내외 어린이 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상남도서관이 아파트촌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따라 잔디광장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어린이야생화 동산을 조성한다는 계획과 함께 어린이 특화 자료실은 물론 어린이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어린이자료 컨텐츠 구축작업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서관협회, "협회소식", 도서관문화, 통권 제338호(2003. 1 · 2), p.40.

52) 어린이도서관 건립 계획을 모범적으로 펼치는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를 들 수 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교육여건의 차별 해소와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해 연차적으로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까지 도내 10개 지역에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건립키로 하였다. 경기도는 이 계획안에 따라 상반기 중 시 · 군별로 신청을 받아 우선 3개 지역을 선정, 도서관 건립비로 1곳당 20억원씩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전용도서관은 도비와 시비 50%씩을 들여 건립되며 정보과학실과 동화구연실, 어린이어학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한국도서관협회, 상게소식, p.37.

4. 어린이전문사서 양성

요즈음은 전문화시대이다. 도서관도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다종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자면 업무의 전문화가 필수일 것이다. 외국에서는 벌써부터 법률전문사서, 의학전문사서, 고문헌전문사서, 금융전문사서, 학교도서관 매체전문가, 어린이전문사서 등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서관과 사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에도 반드시 어린이전문사서가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서교육 제도와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실로 보아서는 힘든 실정이다.

최근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강조되면서 몇 년 전부터 '독서지도사'의 양성이 사회교육 차원에서 각 사회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다. '독서지도사'라는 명칭은 한 사설기관에 의해 일본식 독서교육 모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며, 따라서 학술적 정의가 가능한 용어로 사용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독서지도사 양성교육기관에서 배출되어 '독서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전국적으로 약 5천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53]

제도적 차원에서 양성되지 않고 사회교육 차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현행 독서지도사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4]

첫째, 정책적인 양성체제 정비의 부재로 인해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들마다 그 성격이 각각 다르므로 그에 따라 추구하는 교육 목표나 세부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면 누구나 '독서지도사'라는 명칭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독서지도사'들의 활동 영역이 대부분 각종 '글쓰기 교실', '논술 교실' 등의 사교육시장이어서 창의력이나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교육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편승해 단기간 동안 폭증한 것이 바로 각종 '독서지도자' 또는 '논술지도자' 양성교육과정으로 교육내용도 대부분 독후감 쓰기나 글짓기, 자녀 논술지도 등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독서교육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육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자질과 자격검증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문성이 보장된 독서지도 인력에 의해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53) 고수진, "우리나라 독서교육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독서지도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현황과 개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97, pp.55-56. 독서지도사의 수는 1997년 당시 수이므로, 현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54) 상게논문, pp.97-99.

사설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일종의 수료증[55]인데 공식적으로 인증된 자격증처럼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셋째, 제도 교육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1996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독서'과목이 개설되었지만 필수가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되었으며, 그 내용도 역시 국어과의 독해 영역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독서'과목을 전담할 교사가 없으며, 이를 채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독서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의 교육시간대가 대부분 오전 시간이라 제도권에서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사나 사서들을 위한 배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력은 독서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독서교육은 무분별하게 양산된 독서지도사들에 의해 사교육시장에서가 아니라 제도권 차원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서교육의 본연의 임무를 지닌 도서관계에서부터도 우선 어린이전문사서의 개념 확립이나 정착에 힘써야 한다.

학계에서는 우선 도서관의 어린이봉사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와 지원, 어린이자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야하며, 어린이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도서관협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분과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자료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어린이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56]

그리고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는 현재의 제한적 조건하에서지만 어린이열람실 담당사서는 인사에 있어서 사서 개인의 적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정사서로 배치되어야 하고, 어린이봉사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 어린이도서 선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57] 더 나아가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사서의 업무는 전문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교육과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차후에는 어린이전문사서로 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

55) 물론 현재는 국·사립대학 평생교육원 협의회나 사설기관에서 일정한 교육내용과 시간에 대한 기준을 두어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는 사례도 있다.

56) 송영숙, "독서환경 만들기 사례: 책고리운동," 한국도서관협회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2002. 9), p.62.

57) 김수경(1995), 상게논문, pp.95-96. "어린이도서관 사서의 자질로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의 심리를 이해해야 하며, 둘째, 유모어 감각이 있어야 하며, 셋째, 성품이 부드럽고, 건강하여야 하며, 넷째, 어린이와 책을 좋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친구처럼 들어줄 수 있어야 하며, 넷째, 어린이 문학자료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어린이와 책을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하며, 다섯째, 학교 교사와는 다른 교육자세와 독서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여섯째, 독서지도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일곱째, 어린이 도서의 평가와 선택 능력이 있어야 한다."(김수경, 상게논문, pp.67-68).

V. 결 론

지금까지 다양한 매체 속에서 오늘날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러한 다매체 환경하에서 점점 더 필요로 해지는 독서에 대한 중요성과 어린이·청소년을 독서의 세계로 올바로 안내해야 할 독서교육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국내외의 어린이 독서운동의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독서운동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20여 년간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그 필요성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된 정점에 달해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성공적인 어린이 독서운동을 위해 어린이 독서교육 기관으로 고유한 임무를 지닌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았다.

어린이 독서운동은 이전까지 있어왔던 우리나라의 독서운동처럼 이제 더 이상 위로부터의 선언적이고 행정 편의적이고 시류에 편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어린이 독서운동은 그 수혜자인 어린이를 주체적으로 세우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가정(학부모)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어린이 독서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과 공적 재원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적 재원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가장 적임의 기관은 공공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기존에 어린이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교육을 위해 힘써왔던 공공도서관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와 책을 연결해주는 매개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이를 위해 어린이전문사서의 양성과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여 책과 어린이의 매개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허물어진 공동체 문화의 형성을 위해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세대를 이어주는 이야기문화를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정보, 문화, 교육의 기능과 더불어 황폐화고 상처받기 쉬운 환경 속에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보살펴 주는 기능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이제 일상이 나누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펴서 주민들의 꿈과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 나야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 독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어린이 생활주변에 작은 규모라도 '어린이문고'를 설치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외되고 상업적으로 흐르는 어린이문화의 질적 고양을 위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은 더욱더 바람직한 방안이다.

넷째, 이러한 어린이 독서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즉 어린이전문사서의 양성이 시급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점에서, 제도적인 틈새 시장을 이용하여 '독서지도사'가 무분별하게 양산되어 자칫 독서교육이 사교육 시장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전문사서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계에서는 연구와 교육과정의 개발이 실시되어야 하며,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린이전문사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일선 어린이열람실 담당사서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 독서운동은 '가장 뒤늦게 발견된 인권'[58]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약자층 중의 하나였던 어린이의 인권을 확립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시 강조를 하면 무엇보다 어린이 독서운동은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시각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독서를 통해 삶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활운동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58) 배경내, "어린이 그리고 인권," 문화과학, 통권 제21호(2000, 봄), p.95.